

곡성군, 상시 진료 소아과 시즌2 본격 운영

고향사랑기금 활용 의료 접근성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근무
지정기부 사업 5개 은행서 모금중
“실생활 도움 정책 지속 추진할 것”

1960년 소아과 전문의 제도가 생긴 이래 민간 소아과 전문의가 없었던 전라남도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시즌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소아과 시즌2를 운영한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대도시 의사의 출장 진료 사업인 ‘처음 만나는 소아과-시즌1’을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출장 진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상시진료 요구에 따라 소아과의사가 상주하는 ‘매일 만나는 소아과-시즌2’가 보건지소에서 지난 2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 상시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곡성 관내 아이를 둔 가정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시진료 운영은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의 순기능을 극대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전국 각지의 따뜻한 기부로 모인 지정기부금이 지역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직접 활용됨으로써 기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

곡성군의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계속될 예정이다. 매일 만나는 소아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시즌2’ 지정기부 사업을 현재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모금 중이다.

더불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빨래방 사업’은 지난달 14일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모금 종료됨에 따라 현재 마을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일환인 ‘매일 만나는 소아과-시즌2’가 지난 2일부터 보건지소에서 운영중이다.

곡성군 제공

빨래방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등 사전 준비가 진행 중이다.

곡성군의 유기 동물들이 안락사보다는 입양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 프로젝트’는 현재 많은 관심 속 모금 중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아이 낳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소아과 상시진료 개시는 그 결실 중 하나로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실시 함평군, 관내 97개 경로당 등 대상

전라남도 함평군이 고령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일 함평군은 2025년 남도안전학당이 오는 9월까지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9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위촉한 안전강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어르신께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고령 운전자 및 전동휠체어 이용 시 유의사항) △생활안전(주택 화재 예방, 가스·전기 안전 사용법) △계절별 재난 대응 요령(폭염, 호우, 침수 등) △응급상황 대처법(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등으로 구성되며 회당 약 50분간 진행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의 시간도 함께 마련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16일부터… 성인 900여명 대상

전라남도 담양군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표본 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여부를 포함해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담양군의 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보건 정책 수립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난 5일 담양군 ‘제3회 담빛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with children’에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12개 팀이 경연대회에 참가해 댄스 실력을 겨루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제3회 담빛청소년 댄스 축제 열려

전라남도 담양군이 제24회 담양대나무 축제 기간이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축제 주무대에서 ‘제3회 담빛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with children’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마련된 베베핀 해피콘서트, 모뎀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핑키로컬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전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베베핀 해피콘서트와 포토타임이 진행됐으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어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는 관내 모뎀어린이 및 유공자 1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12개 팀이 참가한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다. 서울, 부산 등 각지에서 참가한 청소년 댄

서들의 열정적인 무대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핑키로컬스의 축하 공연이 어우러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댄스경연대회 대상은 ‘NO LIP’ 팀이 차지했으며 총 12개 팀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올해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어린이날 행사가 함께 열리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의 참여가 더욱 활발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 나은 성장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함평군, 고추 바이러스 매개충 발생 대비 당부

2가지 약제 7월까지 살포해야

전라남도 함평군이 5월 고추 정식 시기를 맞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초기 병해충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함평군은 5월 고추 정식기에는 건전한 묘 사용과 초기 병해충 방제가 고추

생육 안정과 수확량 확보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 총채벌레 등 매개충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5월과 6월은 총채벌레 발생이 많은 시기로, 작용기작이 다른 2가지 전용 약제를 7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번

갈아서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고추꽃 속에 숨어 있는 총채벌레까지 퇴치할 수 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정적인 고추 생산을 위해 정식 이후 병해충 발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각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화순군, 문화 활동 기회 제공

전라남도 화순군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균 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NH농협 채움카드(체크·신용)로 바우처 포인트 2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사업 시행 2년 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복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전남형 창업사관학교 지원자 모집 화순군, 벤처창업 활성화 목표

전라남도 화순군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전남형 창업사관학교’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형 창업사관학교’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기술개발 사업과 지원을 통해 벤처창업 활성화 및 기업 성장 촉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 분야가 지정된 바우처(포인트) 방식으로 월 100만원씩 창업기술사업화(최대 24개월, 24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 인원은 예비 창업자 75명, 5년 이내 창업자 75명으로, 모집 분야는 특화 기술 100명, 농·수산 기술 30명, 문화·관광 20명이다.

선발 기준은 △예비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18세 이상 45세 이하 △전라남도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 △보육센터 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며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전라남도청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www://jnchangup.ezweel.com) 신청 후 공고문에 기재된 보육 기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화순군의 대학생과 청년들의 기술창업에 발판이 되고 군의 기업 성장과 벤처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